◈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국장 : 조선근

수단 단기선교
홍수와 질병의 땅에 의료선교단 파송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교회는 나일강 홍수로 인해 엄청난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단에 12월 22일 의료선교단을 파송키로 했다. 수단은 현재 지난 10년 이래 최악으로 꼽히는 나일강 홍수로 인해 수단 북부의 여러 지역이 수확량의 70% 이상을 잃어버렸으며, 5백여개 이상의 마을이 유실되고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수습하기에 벅찬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 발생하는 말라리아와 설사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수면병' 이 발생하여 수많은 수단인들이 죽어가는 등 참담한 상황이다.

이에 선교위원회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단기선교팀을 현지에 파송하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키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금번 선교팀은 12월 22일(화)에 출발하여 28일(월) 귀국할 예정이다.

단기선교를 위해 성탄절기의 설레임을 포기한 모든 대원들이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그리고 수단인들을 위한 구호물품(문구류, 양말 등) 모으기를 위한 협력도

절실하다(문의 : 선교위원회, 구내전화 356-8).

한편, 현재 수단에서는 우리교회 파송선교사인 김영대 선교사가 수단복음전도대, 에스라성경학교 등을 통해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바 있다.

남성도 구역장 공부
12월 9일 수요2부예배 후 베다니홀

새해부터 교구의 정식 조직으로 편입된 남성도 구역의 활발한 성장을 위한 남성도 구역장 성경공부가 이제 매월 일회에 걸쳐 수요2부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첫 모임이 12월 9일(수)에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교회의 구역모임은 남성도들의 현실적인 여건상 여성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것이 남성도들의 소극적인 교회생활의 빌미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구위원회는 남성도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모로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로서 '남성도 구역예배' 의 성숙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도들은 충현교회가 남성도들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섬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남성도 구역예배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교회 김장 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연합

교회 식당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김장을 담글 예정이다. 5톤 트럭 한 대분 약 2천 5백여 포기를 담글 김장을 위해서 각 교구에서는 15명씩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동참하게 될 예정이다.

이 일을 통해 교구 식구들은 사랑의 수고로 연합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9일에는 9-16교구에서, 10일에는 1-8교구에서, 그리고 11일에는 17교구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식당에서는 김장담그기 자원봉사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에 교회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관 증축 기공예배
예수의 빛과 사랑의 공간으로

어제 12월 5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관 증축을 위한 기공예배가 드려졌다(설교: 김성관 위임목사).

금번 증축은 현재의 건물에 3, 4층을 올리고, 복지관 옆 주차장 위에 2, 3층을 올려 총 363여평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번 주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도 6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교회 산하 법인기관인 사회법인 충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충현복지관이 금번 공사를 계기로 더욱 전문화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하겠다.

남녀전도회 총회 진행 중
'전도하는 전도회' 로 거듭나기

현재 각 교구에서는 남녀전도회 총회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12월 20일(주일)에 임역원들이 모이는 남녀전도부 총회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각 남녀전도회가 교제 중심의 모임에서 실질적인 복음전도를 주도하는 모임으로 발전해가는 현재의 흐름에 감사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뿐 아니라 더욱 발전적으로 정착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는 각 남녀전도회 및 각 교구연합회 전도회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회장단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임 교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모임과 남녀전도부 총회는 아래와 같다.

- 신임 교구전도회연합회 회장 · 부회장 모임
  시간: 12월 13일(주일) 15:30 장소: 칼빈홀
- 남녀전도부 총회
  시간: 12월 20일(주일) 15:00 장소: 갈릴리홀
  * 모든 남녀전도회 임역원 참석 요.

선교사에게 사랑 전하기

성탄절과 새해를 선교지에서 맞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격려가 가득 담긴 편지 및 카드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교구 및 각 부서, 개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사명 : 이준교 선교사(이집트),
안석렬 선교사(수리남),
김영대 선교사(수단) 외
평신도선교사 6인
접수기간 : 오늘까지
접수장소 :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접수물품 : 식품류, 의류, 도서류, 학용품 류 등(쉽게 파손되거나 상하는 음식은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 막 소 식

◈ 군전도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목) 가칠봉 십자탑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 십자탑이 최전방의 군인들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인도하는 '등불' 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녘땅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 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전도회는 지난 12월 4일(금) 금요집회 후부터 1박 2일로 임원영성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을 계기로 경찰전도회가 1999년도 사역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3부는 11월 29일(주일)에 학부모초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한 중등3부 학부모뿐 아니라, 교회학교의 모든 학부모들이 '예수사람 만들기' 를 자녀교육의 제1의 원칙으로 삼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일꾼 키우기에 뛰어들기

12월 13일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국일꾼 키우기를 사명으로 힘쓰는 교사들의 기도와 땀과 진정한 영적 기쁨의 대열에 참여하실 교사들을 기다립니다. 행로에 곤하셨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신 후 기쁨에 찬 모습으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영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김 창 인 목사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자

(이사야 32:1-8)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에 명령하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명령하는 대로 삽니까, 권력자가 속닥거리는 말대로 삽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삽니까?"

1.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1) 예수님은 의로 다스리십니다(1절)

예수님은 의롭게 통치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은 거짓말로 이 사람을 헐고 저 사람을 속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여도 예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권능의 소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실 때에 그 복을 막을 자가 없고, 징계하려고 하실 때에 그 몽둥이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재산이 무궁무진하십니다. 예수님은 피를 쏟고 죽으면서까지 신용을 지켜 주신 진실한 분이십니다.

(2) 예수님은 방백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봉사하도록 다스리십니다(2절)

예수님이 쓰시는 방백들, 즉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라 교인들을 공평하게 보살피도록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다른 것은 섞지 않는 자가 공평합니다.

또한 인정에 끌려가지 않고 세력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공평합니다. 돈에 욕심이 생기거나 명예에 욕심이 생기거나 권세에 욕심이 생기면 벌써 치우친 것입니다.

(3)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으로 다스리십니다(2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거기에는 광풍이 불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사막과 같습니다. 어떠한 음료를 마신다 할지라도 영혼의 컬컬함은 면할 수 없는 담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샘물로 시원하게 적셔 주십니다. 게다가 인간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도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므로 인간들은 너도 나도 위로를 받아야만 하나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석은 사람의 위로는 오히려 사고를 일으킵니다.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워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2.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감사히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1) 영안이 열리는 복을 받습니다(3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 생활이 시작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책임을 깨달아 실천할 용기가 생기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고,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게 유혹하여도 속는 법이 없습니다.

(2) 신령한 귀가 열립니다(3절)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의 노래 소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아우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과 삯꾼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열립니다.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악마의 소리와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립니다.

(3) 조급하고 경망하던 자가 침착하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4절)

오늘날에는 조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급하던 성격이 차츰차츰 변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옳은 생활을 하며 실수가 없는 인격자의 복을 받습니다.

(4) 신령한 입이 열립니다(4절)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로, 신자들끼리 사랑으로 위로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탈선하는 사람을 만나면 권면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를 만나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교훈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전도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핍박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핍박을 만나면서도 담대하게 신앙고백을 하는 입이 열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의 입이 열립니다.

(5)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궤휼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5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므로 미혹하는 간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 가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를 지혜로운 신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3.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1) 참 통치자의 다스림을 거역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6절)

세상에는 참 통치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주님을 거역하며 악을 도모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때에 멸망받을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6절)

첫째, 하나님을 몰라서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를 숨쉬고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 밑에서 자란 곡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도 모르니까 함부로 덤비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둘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역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권세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이 성적인 욕심을 채워 보려고 거스립니다.

(3)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형편이 어떠합니까

첫째, 죄인 줄 알고도 계획적으로 거스립니다(6절). '패역'이란 알고도 거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 줄 알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악을 계획하고 오래 준비하였다가 그 악을 행동에 옮기는 자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이니 필경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남이 잘되는 것을 헐기 위하여 거스립니다(6절). 신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한 남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복받는 것이 미워서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못 먹는 밥이니 모래나 뿌려 주자"라는 식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셋째, 거짓말을 꾸며서 생사람을 잡기까지 거스립니다(7절).

넷째, 아무리 옳은 말을 해 주어도 듣지 않고 거스립니다(7절). 충고도 권면도 듣지 않고 못된 짓만 계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4.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고명한 자는 어떠합니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8절)

'고명한 자'란 세상이 여관인 줄 알고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으며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고명한 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삽니다. 고명한 자는 세상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늘 담대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진리와 범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땀이 나고 손해가 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압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삽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인간은 고명하게 살 마음은 있으나 내 힘이 약하므로 기도하여 은혜를 받아야만 고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늘 깨어 기도함으로 고명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에 명령하고 있는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명령하는 대로 삽니까, 권력자가 속닥거리는 말대로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들을 말은 듣고 듣지 않을 말에는 귀를 막게 됩니다.

조급한 사람이 변하여 침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신자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불신자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의 입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남에게 이용당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 성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성 관 목사

평화에 관한 일

(누가복음 19:41, 42)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본문에서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의 외침을 들으며 입성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평화에 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옛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름답게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곳이며, 축복과 찬양이 솟아나는 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성에 평화를 구하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그들의 눈에서 가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에 평화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잘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고 일도 평소처럼 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야라고 자처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 제자들과 함께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과 지식 속에는 왕중의 왕인 구세주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은 구세주 같지도 않고 그들의 예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길 원하고 평화롭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성공, 명예, 건강 등 이러한 것들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케이블 방송이나 비디오물에서도 행복, 평화, 사랑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사랑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갈망하되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재난을 일으키는 세상

교회들은 저마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만, 실제로는 있어야 할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는 이들 중에도 세상의 노예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회주의자들처럼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축복과 평화가 영원한 삶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술수, 다툼과 쑥덕거림으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고위 정치가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 더 재난을 일으키는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거듭됩니다. 히로시마에 B-52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한 개의 폭탄 때문에 50평방마일이나 되는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곧 이어서 나가사키가 파괴되었고 군인들뿐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남김없이 죽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사능의 영향이 이웃 마을을 송두리째 삼키는, 가히 놀랄 만한 재난이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무수한 사람의 무고한 삶을 앗아간 슬픈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얻느냐는 데에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는 평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평화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조약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장애물들로 인하여 인류는 진정한 평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7). 이사야가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화는 오직 의의 결과로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평화라면 전쟁은 불의와 미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옆사람의 손을 조용히 꼬옥 잡아보십시오.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화해를 청하십시오.
평화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

사실,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가 죽고 맙니다. 인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성찬예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먹다 남은 밥, 찌꺼기, 입던 옷, 우리의 필요 때문에 만들었던 사치품만 모아도 이 세상에는 의식주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이교도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롬 1:31). 이 표현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치한 생활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불의와 미움과 사랑의 부족함으로 생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42절). 예루살렘을 보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용기가 없다면, 겁장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쓴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고백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옆사람의 손을 조용히 꼬옥 잡아보십시오.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화해를 청하십시오. 평화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워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저의 마음은 이 평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간구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라야 우리는 평화를 소유하게 되고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회개합시다. 왕중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교 / 전도

선 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소식

생소했던 제자훈련, 그러나 변화와 성숙의 기회

알렉산드리아에서 허요셉 평신도선교사

성경보급

인구 6백만의 거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코란(회교의 경전)을 판매하는 곳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만,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곳은 3-4곳에 불과합니다. 무료로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은 서점과 역이나 길거리의 가판대를 통해서뿐입니다.

성경 판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중,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일을 먼저 시작한 현지인 형제를 만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보급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사역을 하는 형제와 협력하는 형제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천국일꾼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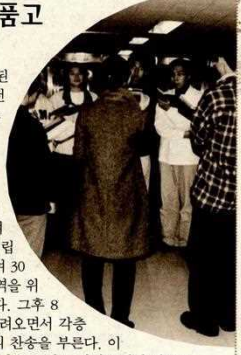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러한 제자훈련이 처음이기 때문에 생소하여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이 훈련에 적응하여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복음전도자로 쓰일 받기를 원하는 20여명의 현지인 청년들과 4명의 강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하실 때, 선교사라는 호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도

대학부 병원전도-NMC(국립의료원)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품고



1974년에 시작된 대학부의 병원전도팀 NMC(그리스도의 새마음, 고후 5:17)은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가 되면 20여명의 대원들은 국립의료원 로비에 모여 30분 동안 그날의 사역을 위해 기도회를 갖는다. 그후 8층부터 3층까지 내려오면서 각층 복도에서 서너 곡의 찬송을 부른다. 이때 찬양을 듣고 관심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3층에서의 찬양이 끝나면 조별로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에게 4영리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한다. 8시까지 말씀을 전하면 다시 로비에 모두 모여 그날 말씀을 전했던 환자들의 수술 날짜나 변화된 모습 등에 대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든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날의 전도활동을 마친다.

바쁜 대학생활이지만 매주 화요일은 병원 전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시간

이뿐 아니라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메추라기홀에 모여 환자들의 믿음과 쾌유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또 한 주일 동안 흩어져 살았던 NMC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와 다음주의 찬양을 위한 찬양 연습을 한다. 여름에는 부산과 마산의 6-7개의 병원에서 하계 전도활동을 하고, 가을에는 찬양 드림의 정기 연주회를 한다.

NMC의 신입대원들은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 4영리를 공부하고 병원에서는 6주 동안 선배들의 전도하는 것을 본다. 그후 NMC의 대장과 부대장이 NMC 대원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전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NMC의 대원들은 예민한 환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환자들을 대하는 어려움 외에도 학교 생활과 관련되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으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대학생활 하는 동안 매주 화요일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로 작정하고 한결같이 섬기고 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환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순결하고 아름답다. (박주영 기자)

청년1부의 병원전도팀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강남병원(삼성동 소재)에서 사역을 한다. 이들은 사역에 들어가기 전 한 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날의 사역을 위한 마지막 무장에 임한다. 그리고 나서 어느날은 함께 다니기도 하고 또 어느날은 흩어져 병실을 돌기도 하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며,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한다. 이러기를 2시간여. 그후 다시 모여 그날의 사역을 서로 나누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날의 사역을 마무리한다.

이들이 만나는 환자들은 대개가 장기 입원환자들이다. 어떠한 질병이든 그것의 치유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수개월 혹은 수년간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침체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도대원들이 찾아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한편에 있는 두려움도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환자들을 돌아본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그곳에 기꺼이 복음으로 변화된 후 또 복음 전하는 환자도 주께서 준비해주신 기회 놓치지 않으려

그런데 이들이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란 일차적으로 기나긴 투병생활로 인해 지친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기울이고 하소연과도 같은 얘기들을 들어 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90도의 전신 화상을 입고 거의 삶을 포기했지만, 복음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고 그와 함께 육신의 질고로부터 점차 자유스러워가는 환자나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를 크게 다쳐 육신의 마비로 성장이 느리고 말조차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자신들을 한 주일 내내 기다린다는 11살의 소년 환자, 그밖에도 그들이 만나는 여러 환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고백한다.

한번은 그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들은 한 환자가 또 다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연결해 준 적이 있었다.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이 뿌린 작은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가꾸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사역의 귀함을 실감했다고 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채 그 환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안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이종희).

청년2부 병원전도팀-겨자씨

희어져 추수할 것 많은 곳 서울중앙병원

백 명 자(집사, 청년2부)

각자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은 기도로 준비하던 중 지도 목사님의 독려로 98년 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병원전도를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과 주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성내역에 모여 찬송하며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중앙병원에 도착하여 기도회를 가진 후 2명씩 짝을 지어 병실로 흩어져 점심시간까지 복음을 전한다. 전도활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한 자들과 영접한 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환자들의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해진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환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다. 그야말로 희어져 추수할 곳이 바로 병원이라는 생각이다. 월요일마다 2-3명씩 영접을 하는데, 이들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 게다가 보호자들까지 전도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다.

낙심했던 환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할 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시끄럽다' 며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경비실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였다. 완강하게 반대하던 보호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낙심했던 환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할 때에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단지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환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간암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주에 갔더니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기도 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청년2부 회원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병원전도가 좀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간병인(자원봉사자) 제도를 갖추어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환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전도의 효과가 더욱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전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갖는다. 더욱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어린이 / 청소년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렵니다

'평생 예수님 손 잡고 가는 예승이가 되게 해주세요'

차 혜 숙(집사, 2교구)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도 성경책을 차지하고 보면서 어떤 때는 책장을 찢어 농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의젓한 모습으로 자라고 유아세례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1월 8일, 우리 예승이의 유아세례 문답을 하면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아이가 신앙고백을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믿음에 따라 열 가지 서약을 한 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아이임을 기억하고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여 장차 이 아이가 입교하고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하신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에 과연 우리 부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을 해 보았다. 내 자신이 비록 약하지만 우리 부부가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11월 15일, 드디어 유아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다. 게다가 그날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여서 여느 때보다 사뭇 들뜬 기분이었다.

유아세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 부부가 15분 전에 나가서 앉아 있노라니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 예승이가 태어나던 날은 우리 집이 이사를 가던 날이었다. 그날 따라 아침밥을 서둘러 먹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배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병원으로 가고 남편은 혼자 이사를 해야 했다. 아주 바쁘고 힘들거라 생각하면서, 나도 혼자서 외롭게 우리 아이를 맞이해야만 했다. 그러나 외로움은 잠깐! 믿음의 형제, 구역 식구, 여전도회원, 영아부 학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아부 전도사님, 장로님, 부감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니 다시 눈시울이 붉어진다.

태어난 지 한달 만에 영아부에 나와서 등록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 영아부에뿐만 아니라 천국의 생명책에도 '강예승' 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 믿으면서 두 손 모두어 기도하려고 하면, 빨리 우유를 달라고 울기부터 하는 우리 예승이. 예배시간에 잠만 자던 아이가 지금은 무엇을 만지려고 하는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도 성경책을 독차지하고 보면서 어떤 때는 책장을 찢어 농기도 했다. 이를 혼이라도 낼라 치면 울음보를 터뜨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게 예배를 마쳐야 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의젓한 모습으로 자라고 유아세례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예승이가 평생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23명, 여 22명 합 45명. 목양관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이하 목회자 자녀들의 숫자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우시다. 어느집은 아들만 셋이고, 어느 집은 딸만 둘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보면 남녀의 비율이 거의 들어맞는다.

역삼1동 674-3의 충현빌라와 역삼동 663-27, 663-28의 제1, 2목양관 앞에는 늘 이 아이들의 노는 소리로 밝고 명랑하다. 다소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얼마전 지어진 충현 어린이공원 덕분에 그것도 문제 없게 되었다.

목양관의 저녁은 도란거리는 소리들과 유난히 웃는 소리가 큰 C 목사님 등의 껄껄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소리들로 정겹다. 목양관에 함께 살고 있는 꼬마 성도님들(?)을 잠시 만났다.

"목양관에서 함께 사는게 좋아요?" "네!! 마당이 있어서 좋아요. 협동심을 배워서 좋아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아요. 목사님들 매일 만나서 좋아요."

"아빠가 목사님이시라서 좋은 점은 뭘까요?"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좋아요!"

"나중에 아빠처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고 싶은 사람있어요?" "저요, 저요, 저요!! 저는 선교사보다는 목사님 부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돕는 걸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시험 잘 봐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이들 모두가 한없이 밝고 즐거워보였다. 앞으로 이들을 사용하실 주님의 손길이 기다려진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하여

주일에 학원 가도 되냐구?

"선생님, 주일에 학원 보충수업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예배시간이랑 중복돼요. 그리고 시험기간이거든요. 엄마도 은근히 학원에 갔으면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갈테면 가라!"
"정말 가도 돼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께요"
"근데, 예배가 학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지마!"
"....."

총쏘고 수류탄 던지고 대포를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학원에 가느냐 이것도 전쟁이다. 아니 더 크고 더 무서운 전쟁이다. 총으로 하는 전쟁은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는 전쟁에 불과하지만, 예배의 문제는 땅과 하늘, 지금과 영원, 몸과 영혼을 포함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선생님, 뭔- 주일날 한 두 번 예배 빠지고 학원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등지는 건가요? 오히려 예배드리러 나와서 학원 생각하면서 멍하게 앉아 있느니 차라리 가서 공부하는게 더 낫지요"
"예배드리느냐 학원가느냐의 문제는 효과적인 시간사용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야. 예배 빠지고 학원 가겠다는 것은 '내 노력과 힘을 믿겠다'는 고백이고, 학원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겠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야. 너 자신을 믿니? 아니면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믿지요."
"학원에 갈거니? 예배드릴거니?"
"생각좀 해 보구요."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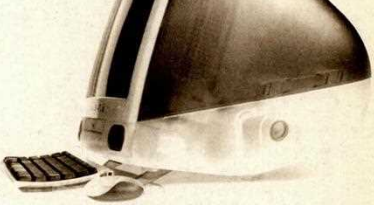
(편집실)

컴퓨터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모니터 속에 갇힌 하나님

염 현 일(전도사, 중등1부 지도)

우리는 연약해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수록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선악과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오늘날 인류가 현대문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며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위험한 점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그것 역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은 바로 '대화의 단절'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 시작된 가족간의 대화의 단절은 9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영혼의 기갈' 이라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창조물인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저장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컴퓨터는 사람들의 생각의 찌꺼기를 기록해놓은 물건에 불과하기에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면 될수록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선악과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망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니터 속에 가두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악의 본성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에 놓고 다루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러한 욕망을 잘 해결해 줍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은 불과 20인치 안팎의 모니터 안에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 역시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질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컴퓨터는 위와 같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만 사람이 건전한 방향으로 잘만 다룬다면 참으로 유익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검색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잘만 찾아서 조합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장단점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를!

기쁨으로 진행한 데살로니가 강해

데살로니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인해 기뻤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인해서입니다. 78명이 등록하여 수강하였는데 그중에서 21명이 개근하였습니다. 강의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씩만 결석하였을 뿐 거의 모두가 다 개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일로 결석하게 되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성도님들이 그저 강의를 듣기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매시간 강의 후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의 시작 전에 커피를 들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모든 분위기를 한결 밝게 해 주었습니다. 매시간 60명이 넘는 분들에게 정성껏 커피를 대접해 주신 집사님,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집사님, 밝고 환한 얼굴로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를 밝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저 자신이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심오한 교리를 말하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복음에 합당한 성숙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을 위해 염려하면서도 우선 그들을 축복하는 어버이와 같은 마음을 배웠고,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일하는 동역자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생각하여 언제나 '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라고 말하는 마음, 천국을 확신한 성도이지만 이 세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복음에 투철할 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깊은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것은 교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느끼기 전에 "주여 이것은 제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나의 약함을 볼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리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의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인사법을 본따서 "샬롬!" 하고 인사하였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지나가다 만나도 서로 "샬롬!" 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평강을 빕니다. 샬롬!

골로새서 성경공부를 마치면서

김 은 심(집사, 7교구)

모태신앙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선 후 20여년을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달리던 나는 적신호에 막혀 멈춰섰다.

오랜 해외 생활로 서먹한 남편과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달깝게 몸부림치며 또 한편은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위임목사님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우리 가정 속에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이 촉촉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막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이었다. 구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언제나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함께 새벽 제단까지 허락하시며 남편이 성경공부를 자원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기독론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골로새서반을 택하여 등록했는데 강의 첫날 개요시간에 "이 수업을 마

구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언제나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함께 새벽 제단까지 허락하시며 남편이 성경공부를 자원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친 후 여러분은 으뜸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소원으로 깊이 와 닿으며 '나의 문제는 바로 이거다' 라는 영혼의 설레임으로 나의 신앙을 흔들었다. 공부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해 주셨다. 소명을 상실한 채 육의 영달과 안일에 안주해 있던 내 신앙의 현주소, 죄와 세상에 대해 전혀 죽지 못한 새장에 갇혀 있는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뜨려 땅의 지체를 죽여 주시고 새롭게 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내면의 깊은 우물 속에 가득채워 주시고 으뜸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일 자체만을 위한 교회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 여정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한 시간 시간마다 열강으로 깊은 말씀 속에 이끌어 주신 목사님, 친목의 날 주님의 사랑이 가득찬 기쁨으로 애찬을 나누던 집사님들, 홍일점으로 끝까지 성경공부를 마친 사랑하는 나의 남편 장 집사님. 이 모든 이들이 신앙의 본으로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며 언제나 교회일에 자상하게 배려하며 도와주는 장 집사님께도 더욱 감사드리고 싶다.

한순간의 땀방울

김 정 수(권찰, 1교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우리는 정상을 정복했는가
글 이르듯이 ….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찬송가 높이 불러
하늘을 우러렀는가
정복을 기념했는가

하루의 일력을
믿음의 결단으로 떼어
주 하나님께 바치듯이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결국 정상을 정복했는가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드높이면서

주님께서 흘려 주신
뜨거운 피, 땀방울을
맛보는
목자의 어린 양답게
우리는 목자를 뒤따랐는가

우리 이렇게 모여
또 한 차례의
성경공부를 마치면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기쁘게 바라보면서 ….

그 향(香) ….
세상으로 흩어지는
한 순간의 땀방울은
영원에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감격이던가!!!

이달에 만난 성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이범무 집사(미화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이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식어다. 충현교회는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충성되이 섬기는 일꾼들로 인해 힘있게 세워져간다. 이 달에 만난 성도도 바로 그런 분이다. 늘 같은 모습으로 청소도구를 들고 땀을 흘리는 이범무 집사님. 교회 미화부의 직원이다.

-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이범무 집사: 1992년도부터입니다. 저는 본래 불교집안에서 자라났고, 아직도 저의 형들은 불교신자들인데, 제 큰 아들(선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 사랑부에 나오게 되면서 충현교회 식구가 되었고, 그 때 교회에서 미화부 직원을 뽑는 기회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맞은 인생 최대의 위기와 인생 최대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범무 집사: 인생 최대의 위기라면 큰 아들녀석(23세)이 절도죄로 실형을 살게 되었을 때, 제 신앙이 연약해서 인간적으로 빼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도 다 잃고 아들도 더 나쁘게 되었지요. 그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제 자식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겨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기도합니다. 80년대 후반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 충현교회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이범무 집사: 제가 볼 때에 충현교회는 초신자들에게는 문턱이 조금 높지만, 일단 들어오면 완전히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 때문에 충현교회생활이 좋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말씀과 찬송, 그리고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

이범무 집사: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삼서 2절이구요, 찬송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입니다. 그리고, 기도제목은 둘째아들 선우가 아직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아이가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등입니다.

- 감사합니다.

권사회 총회 예배를 드리며

금 호 순(권사, 4교구)

오래 전, 결혼한 지 몇 년 안된 내게 교회에서 권찰의 직분을 주겠다기에 그때 나는 잘 모르고 권찰보다는 집사직을 바로 달라고 했었다. 얼마나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일꾼이 없는 중 중,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지나며 회장이며 임원을 맡아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면서 이런 자격을 가진 내게 권찰보다는 집사직을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던 것이다. 금 권찰이라 부르는 것보다 금 집사라고 부르기가 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김스를 한 사람처럼 목이 곧은 권찰이 되어 오랫동안 가정과 자녀 사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굴복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었다.

"98년도 수고하신 회장님과 선배 권사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의 면류관은 하늘에 예비되었을 줄 믿으며 수고하신 권사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내년도에 새로이 주의 귀한 직분을 받게 된 회장님과 임원 권사님, 교회 구석구석 부족한 곳이 어딘지 잘 살펴주시고 사랑의 마음과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산출하는 권사회, 영적 부흥과 말씀 중심과 기도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권사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우리 충현의 젊은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교회를 품으며 선교에 앞장서는 권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천사표 원로권사님들과 선배 권사님들의 연속 기도며 각종 일에 보아스와 야긴처럼 충현교회의 말씀과 믿음의 기둥으로, 또 모세의 팔을 들어올린 아론과 훌처럼 기도 대장님이시라 믿습니다. 민족과 교회의 아픔을 다 체험하신 원로목사님과 위임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답게 이루워지도록 기도로 곽곽 밀어드리는 권사회가 되십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다가 천사의 나팔소리에 다 함께 들려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현·게·시·판

탁아부? 탁아소?

김 경 칠(장로, 탁아부 부장)

충현교회내에 탁아부를 운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탁아부에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녀들을 2-4부예배 시간에만 맡기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부예배시부터 찬양예배시까지 탁아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1부예배 시간에 맡겨지는 2, 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5부예배는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이고, 4부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자녀들을 데려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교구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거나 전도회 및 다른 부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탁아부에서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점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 시간 : 2-4부예배 전 20분~예배 후 10분

지체들 소식

영아부
기대하세요, 성탄 전야에 부를 우리의 찬양을!

영아부 아기들이 유아부로 진급할 때가 되어서인지 이제는 말이 제법 또렷또렷하고, 찬양하는 음정 박자가 정확하고 율동 역시 다 기억하고 예쁘게 한다. 12월 24일 본당에서 있을 찬양예배 준비로 요즘 우리 친구들과 엄마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바쁘다. 아기들이 작은 입 벌려서 하나님께 예쁜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귀엽고 작은 몸짓으로 율동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송혜경 통신원)

중등2부
선생님, 애 많이 쓰셨어요!

"지난 일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지만 기념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월말이면 예외없이 나오셔서 상조회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학생들의 생일 선물까지도 하나하나 챙겨 주시는 집사님께서 올 한해 예외없이 모든 선생님들께 기념품으로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예쁘게 포장한 선물 상자들을 내 놓으셨습니다. 항상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집사님! 때로는 아무도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제까지도 지적하시며 충고나 도움을 주시는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땀흘리는 수고로 부족한 우리 교사들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올립니다. (나성애 통신원)

유년부
총무처, 교무처, 생활지도처 에필로그

마감의 달, 보고의 달 12월입니다. 각 부서마다 금년을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유년부에서도 올해를 뒤돌아 보면서 사업계획안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주관한 3처의 보고서를 '살짝' 보여 드릴까 해요.

총무처장 오순도 집사님은 실로암찬양대원으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행사로는 헌금송을 위한 유년부 찬양대의 바이올린 연주와 성경학교 때 깜짝퀴즈라고 하셨어요. 신입과 선생님들의 전도와 학생관리를 높이 평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신앙의 좌우명이라고 하셨어요. 교무처장 오해섭 집사님은 교사들과 어린이들 사이에 사랑의 끈끈한 정을 누린 아름다운 시간을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셨어요. 등반 학생들에 대한 기존반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기도는 항상 삶의 일부분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길 바라신답니다. 생활지도처장 송병렬 집사님은 전도회를 통해 족구로 친교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섬김의 자세로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겸손을 느꼈던 세족식이 가장 인상적이셨대요. 굵직한 행사 대회 때마다 높은 참여도와 관심어린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신답니다.

이렇듯 3처의 98년도 보고는 한 해를 마감 평가하는 회고록인 동시에 내년을 향한 좋은 지침서가 될 거에요. 3처 모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는 말씀을 기둥 삼아 유년부를 지탱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강현주 통신원)

7교구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고 이양희 집사와 고 김희태 성도, 고 김용호 성도의 장례식이 잇달아 있었다. 고인들이 천국으로 초청되었다며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도 성도들을 위해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교역자에게 감사드린다. 아무때나 어디서든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자 달려오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머리되신 예수님을 한 분으로 해서 하나되는 지체들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새벽하늘을 가로지르는 7교구 찬양대의 찬양소리는 진정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유가족들의 가슴깊이 스며드는 위로가 되었으리라.

10교구
총동원 잔치

10교구 총동원 잔치를 통해서 성도간에 사랑과 떡을 나누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교구 모임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새신자를 환영하는 자리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11월 21일(토) 오후 3시에 200명의 하나님의 아들, 딸 들이 수유리 영락기도원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구장 최성현 장로님께서 묵상기도를 해주셨고 김재철 지도 목사님께서 '산 소망' 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우리에겐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김재철 목사님의 사회로 각 지역별 새가족과 지역과 구역일꾼 소개와 지역별 찬양이 1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특히나 성도들을 놀라게 한 것은 김재철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황현철 집사님의 인도하에 여러 가지 장기 자랑과 성경 퀴즈, 게임, 레크리에이션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지체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강만호 통신원)

15교구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마련이건만, 오늘날 자녀 교육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 해 있으나 꼭집어서 어떠한 정답을 내 놓을 수 없는 것이 지도자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교구모임에서 전해진 말씀의 주제는 자녀교육. 부모의 지식과 능력은 급변하는 세상 지식과 풍조에 밀려 한계에 부딪쳐서 자녀들의 교육의 현주소가 날로 불안해지고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귀한 진리가 있다. 이 시간 김인식 목사님께서는 부모된 자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에 따르고,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 천국 일꾼으로 키우는 가정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한숙정 통신원)

광고!

남성중창단 찬양 CD 1, 2집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알 림

1. 장학헌금 안내 / 13일(다음 주일) I , II, III, IV, V부예배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99년도 제직 및 교구임꾼, 교회학교 교사 임명 / 13일(다음 주일) IV부예배시 있습니다.
3. 99년도 II부와 IV부예배 헌금 · 안내위원, 찬양대원 임명 / 13일(다음 주일) 각 예배시 있습니다.
4. 99년도 시온 · 실로암찬양대, 크로마하프 · 만도린, 남성중창단 대원 임명 / 13일(다음 주일) IV부예배시 있습니다.
5. 교구총회 / 13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6. 99년도 호산나찬양대 대원 임명 / 16일(수) I 부예배시 있습니다.
7. 남성도구역장 성경공부 / 9일(수) II부예배 후, 베다니홀

◈모 임

1. 정기당회 / 9일(수) 20:10, 당회실
2.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8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및 성경공부 / 7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16:30, 갈릴리홀
5. 교정전도회 총회 / 오늘 기도회 후, 갈릴리홀
6.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0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7. 실업인전도회 총회 속회 / 8일(화) 18:30, 칼빈홀
8. 경찰전도회 총회 속회 / 13일(다음 주일) 15:00, 칼빈홀
9. 안수집사회 총회 속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10. 권사회 연합 기도회 / 9일(수) I 부예배 후, 갈릴리홀

◈남녀전도회

1. 바 울 2 송년회 / 부부동반, 12일(토) 16:00, 교회 동문앞 (17:00, 광주 그로리하우스(0347-762-2571)
2. 바 울17 총회 속회 / 12일(토) 18:00, 옛날 황구네(분당 중앙교회 옆)
3. 베드로 1 / 부부동반, 12일(토) 19:30, 세영가든(복지관 뒤, 563-1334)
4. 요 한 6 / 13일(다음 주일) 12:00-13:30, 칼빈홀
5. 요 한17 / 12일(토) 18:00, 은성가든(0342-742-7788)

◈결 혼

1. 김현수군(김정남 성도, 강정희 집사의 아들, 제4교구)과 최소진양 (최광선 씨, 김경자 씨의 딸) / 8일(화) 12:00 갈릴리홀

◈별 세

1. 노석진 장로(이옥근 권사 남편, 제17교구 샛별구역) / 11월 26일 별세, 11월 28일 장례
2. 이규환 씨(이국표 집사 부친, 제6교구 송파구역) / 11월 27일 별세, 11월 29일 장례
3. 김우정 성도(김부진 성도, 김대진 성도, 김명주 권사, 김성주 집사 부친, 최차용 안수집사 장인, 제4교구 반포8구역) / 2일 별세, 4일 장례
4. 이한길 성도(나정순 집사 남편, 제15교구 신림2구역) / 2일 별세, 4일 장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김양준 집사, 이순자 집사 / 의정부시 호원동 442-1 성호A, 102-2006, 전화: 0351-872-8369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30	최은에	4	루디아	이진규(7)	1840	이서영	19	대학부		1850	김선경	19	청년1부	
1831	이득용	5	청년2부	김순(5)	1841	박정훈	19	대학부		1851	박광열	19	청년1부	
1832	김창혜	5	청년2부	김순(5)	1842	허명화	14	청년2부		1852	김은수	19	청년1부	송기봉(11)
1833	채금인	9	루디아	오정혜(5)	1843	오여명	1	청년1부	노전옥(1)	1853	김상일	19	청년2부	강진택(13)
1834	임철수	9	대학부	이진규(7)	1844	안석환	19	베드로	김인순(11)	1854	차지모	19	중등부	
1835	김선옥	15	청년2부	최재순(15)	1845	이영선	19	대학부	고혁진(16)	1855	김른별	19	중등부	
1836	우현숙	17	청년2부	전옥미(5)	1846	이배성	6	고등부	황명숙(6)	1856	임정우	19	중등부	
1837	김용훈	5	중등1부		1847	조규광	12	베드로		1857	김나리	19	중등부	
1838	박미라	19	대학부	류현실(19)	1848	김희정	19	에바다부	박인기(8)	1858	홍성애	19	중등부	
1839	이경훈	19	대학부	류기석(19)	1849	김윤희	19	청년1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 중보의 창

1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12월 9일의 당회를 통해 99년도를 위한 인사와 재정 등 중요 사안들이 주님 뜻에 따라 선하게 결정되게 하소서.

3 12월 22일부터 28일에 걸쳐 진행될 수단 단기의료선교를 통해 수단의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아지게 하소서.

4 각 남녀전도회 총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전도회' 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소서.

6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7 12월 25일 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는 메시아 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영혼의 찬송이 되도록 모든 대원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8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이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년도 봉사부서를 잘 선택하게 인도하소서.

9 추운 날씨로 인해 더욱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소서.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김재철 이승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박중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염현일 한승일 김영기 송원석
김창준 조재민 허용구 이후찬 김병수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

물매돌

동행하시는 주님

한 숙 정(집사, 15교구)

해마다 이때쯤이면 영원한 과거에 묻히게 된 허비한 시간으로 인해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늘상 그렇듯이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짐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었음을 고백할 뿐이었다.

12월을 앞두었던 며칠 전 지난 11개월동안의 광세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하루하루 함께 하셨던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손길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키시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감사드렸다. 해마다 드려졌던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였다면 올해의 감사는 풍랑 속에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눈으로 본 감사였다. 분명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치로 본다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정에 있었으나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스스로도 대견함을 알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성숙을 보게 하셨다. 또한 믿음 안에서 좋은 경주자들을 주셔서 기도와 하나님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지금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달려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렸다.

'주님! 세상이 주는 것들을 상실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은 믿음과 주 안에서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주소서 '

12월 13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소프라노 김송자
(아멘찬양대 솔로이스트)
〈찬양곡목〉
· 내 주의 보혈은(찬 186장)
· 너 근심 걱정 말아라(찬 432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 주님의 얼굴 보라

❖ 3부예배
임마누엘중창단
〈찬양곡목〉
· 아 내 맘 속에(찬 473장)
· 멀리멀리 갔더니(찬 440장)
· 자비하신 예수여(찬 450장)
· 이 세상 어딜 가든지

❖ 4부예배
소프라노 김송자
(아멘찬양대 솔로이스트)
〈찬양곡목〉
· 이 세상 험하고(찬 197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 460장)
· 예수 인도하셨네
· 나 주께 기도드리니

❖ 5부예배
오르간 민희정
(벧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예수가 거느리시니
· 다 감사드리세